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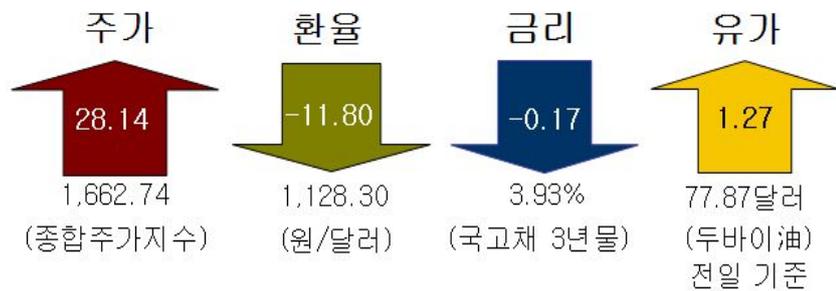
10-10(통권 390호)
2010.03.12



■ 국내 경제 위기 극복의 특징과 과제
- 가계, 기업 부문 회복이 미흡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5~3.1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제 경제 위기 극복의 특징과 과제	
- 가계, 기업 부문 회복이 미흡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연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김 민 정 연구 위 원 (3669-4457, mjkim@hri.co.kr)
 김 동 열 연구 위 원 (3669-4112, dykim@hri.co.kr)
 전 선 형 연구 위 원 (3669-4131, shj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경제 위기 극복의 특징과 과제

- 가계, 기업 부문 회복이 미흡

(국내 경제 빠른 회복세 시현) 국내 경제는 2008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2009년 4/4분기에는 6.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0.2%로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2.4%, 일본 -5.0%, 영국 4.8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부문별 리스크 증대 속 안정단계에 진입한 국내 경제) 국내 경제는 최근 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경제의 위기 경로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경제위기관리지수를 보면, 지난 2008년 12월 8.4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0년 1월에는 92.82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고점인 90.0을 넘어섰다. 또, 경제위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2008년 8월에 매우 위험한 구간에 진입한 이후, 2009년 9월 이후에는 안정 구간으로 진입하여 국내 경제가 최근 들어 급격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가 향후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지를 나타내는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도 2010년 1월 최고치인 86.2를 기록하여, 우리 경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내 경제가 안정화된 것은 실물과 금융 부문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가계 부문의 경제위기관리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경기 회복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기업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기업 채산성이 재악화되고, 수출과 내수 부문 출하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가계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경기 회복의 관건은 외수 여건 변화) 한편, 외환위기 때와 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경기 회복 패턴을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시에는 수출 주도형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정부 소비를 기반으로 한 내수 주도형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시에는 세계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면서 교역량도 증가한 가운데 위기 발발 2개월 만에 월평균 환율이 66.4%나 급등하면서 외수 여건이 국내 수출 경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교역량도 감소하는 등 외수 환경이 급랭되면서 국내 경기도 급락하였으나,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하에 건설 부문과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외수 여건의 큰 개선 없이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효과가 약화될 경우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

(대응 과제) 향후 국내 경제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수출 증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세계 금융시장 급변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금융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위기 파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들과의 경제 협력 가속을 통한 신시장 개척, 선진국 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외수 여건 급변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 경제 위기 극복의 특징과 과제 >

국내 경기 빠른 회복세

- 2009년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4/4분기에는 6.0%의 높은 성장세 시현
- 2009년 전체로는 한국 0.2%로 플러스 성장했으나, 미국 -2.4%, 일본 -5.0%, 영국 -4.8%로 주요 선진국들 마이너스 성장

안정단계에 진입하면서
지속성장 기대

한국 경제 안정단계 진입

- 경제위기관리지수 급상승 : 2008년 12월 8.45로 최저 수준 기록 후 2010년 1월 92.82로 외환위기 직후 최고치인 90.0을 상회
- 안정단계에 진입 : 5단계 구간분석 결과 2009년 9월 이후 안정단계 진입

향후 경기 상승 기대 고조

-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 : 2009년 1월 이후 반등. 2010년 1월 현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72.4보다 높은 86.2를 기록

부문별로는 리스크 요인 상존

부문별 리스크 요인 상존

- 가계와 기업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
→ 가계 부문은 2010년 1월부터, 기업 부문은 2009년 12월부터 경제위기 관리지수가 하락세로 전환

향후 경기 회복 속도는
외수 여건 변화에 의존

경기 회복 특징 비교

- 외환위기
 - 수출주도형 회복 : 수출→ 설비투자, 민간소비→ 건설투자→ V자 회복
 - 회복 배경 : 세계 경제 성장 지속 속 교역량 증가, 환율 급등
- 금융위기
 - 정부 소비 중심 내수회복형 : 정부소비→ 건설투자, 민간소비→ 수출→ 설비투자→ 경기 회복
 - 회복 배경 :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효과

대응 과제

경기 회복 지속을 위한 과제

-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 국제 공조 지속, 국내외 금융시장 위기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국내 자산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 수출 증대 노력 지속 : 주요 신흥 개도국들과의 경제 협력 가속, 선진국 시장 마케팅 강화 지원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등
- 내수 경기 활성화 : 경기 리스크 요인 해소 때까지 정부 재정 역할을 중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통한 소비 기반 확대, 내수 기업 지원 강화, 출구전략 시기 조정

1. 국내 경기 빠른 회복세 시현

○ (선진국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임

- 국내 경제는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
 -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 지난 2008년 4/4분기 -3.4%를 기록한 후 2009년에도 1/4분기 -4.2%, 2/4분기 -2.2%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하지만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4/4분기에는 6.0%의 높은 경기 회복세를 보임
- 더욱이 OECD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지난 2009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0.2%로 미국 -2.4%, 일본 -5.0%, 영국 -4.8%로 나타나, OECD 주요국들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한국	3.1	-3.4	2.2	-4.2	-2.2	0.9	6.0	0.2
미국	-2.7	-5.4	0.4	-6.4	-0.7	2.2	5.9	-2.4
일본	-1.1	-3.0	-1.2	-3.2	1.3	0.0	1.1	-5.0
영국	-0.9	-1.8	0.5	-2.6	-0.6	-0.3	0.3	-4.8
유로	-0.4	-1.9	0.7	-2.5	-0.1	0.4	0.1	-4.1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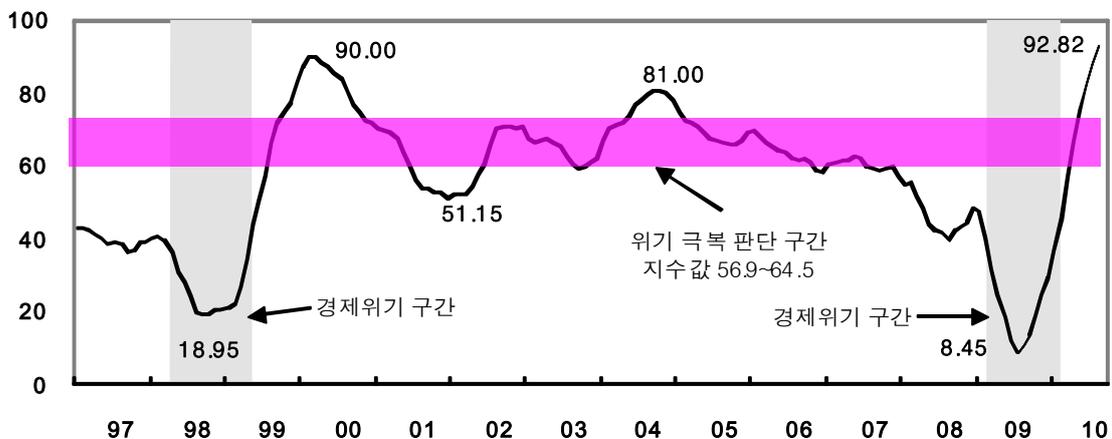
주 :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일본과 영국 및 유로지역은 전기대비임.

2. 경제 위기 극복 과정 평가

○ (한국 경제 안정 단계 진입) 2008년 12월 경제위기관리지수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우리 경제는 이후 2009년 1월부터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위기관리지수의 개념 : 현재 국내 경제의 위기 경로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로 국내외 거시·미시 경제지표들을 지수화하여 현재 경제 위기 정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관리하는 한편, 경제위기극복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정에 진입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¹⁾
- 경제위기관리지수 급상승 : 경제위기관리지수는 지난 2008년 12월 8.4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0년 1월에는 92.82를 기록, 외환위기 극복 당시('99년 8월, 90.00) 보다 높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임
- 매우 안정 단계에 진입한 한국 경제 : 경제위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5단계 구간(Quantile) 분석 결과 2008년 8월 매우 위험 구간(1레벨)에 들어선 이후, 2009년 7월에 위기 구간(2레벨), 8월 보통 구간(3레벨), 9월 안정 구간(4레벨)을 거치며 매우 급격하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제위기관리지수 추이와 경제위기 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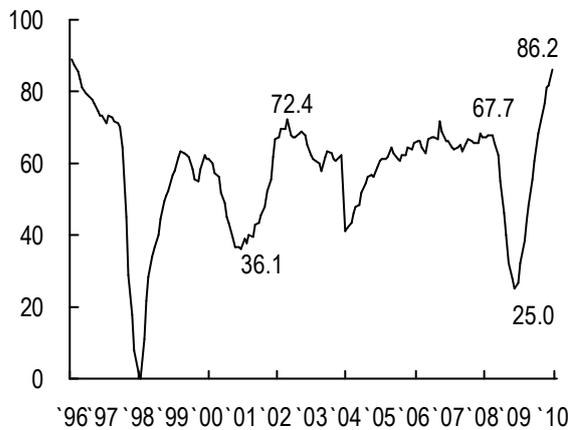
주 : 회색 구간은 위기 임계치(가중치=1.0) 분석에 따른 경제위기 구간을 나타냄.

1) 경제위기관리지수 산출 및 구간 분석 방법은 <참고 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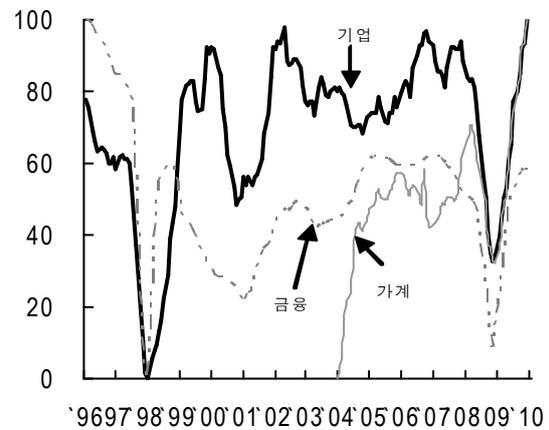
○ (안정적인 경기 회복 기대) 2008년 12월까지 급격히 하락하던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는 2009년 1월 이후 반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72.4(2002년 5월) 보다 높은 86.2를 기록

-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는 금융, 기업, 가계 3개 부문에 있어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수로 각 부문별 선행성을 나타내는 부문별 지표들로 이루어진 지수2)
-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는 2008년 12월 25.0으로 직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반등, 2009년 1월에 26.4, 4월에 43.9, 7월에 60.8을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 2010년 1월에는 86.2를 기록
- 가계 부문 위기극복가능지수는 2009년 1월, 32.1로 최악의 수준을 보인 이후 반등하여 2월에 36.1, 6월에 60.5, 10월에 87.5 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 2010년 1월에 최고치인 100 까지 도달하여 놀라운 개선 상태를 나타냄
- 기업 부문 위기극복가능지수는 2007년 12월 직전 최고치인 93.7 을 기록한 이래 2008년 12월에는 32.6 까지 하락하여 최악의 상황을 보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10년 1월에는 최고치인 100까지 도달

< 전체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 >



< 부문별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 >



2) 위기극복가능지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 2>를 참조.

○ (부문별로는 리스크 증대) 한편, 경제위기관리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실물과 금융 부문 지수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과 가계 부문은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회복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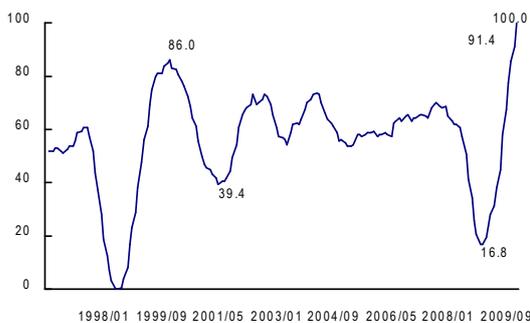
- 실물과 금융 부문은 상승세 지속

- 실물 부문 지수는 2009년 2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2010년 1월에는 100.0까지 상승하여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 또, 금융 부문 지수는 2009년 1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된 후 연중 상승하여 2010년 1월에는 85.6 까지 상승하여 13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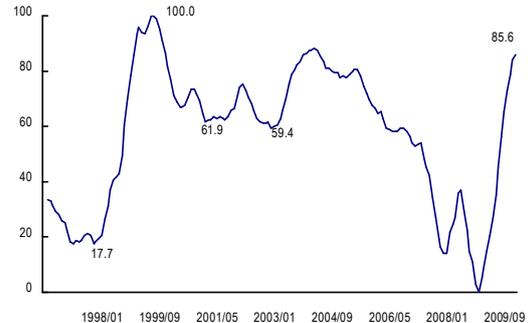
- 기업과 가계 부문 지수 하락세 전환

- 기업 부문 지수는 2008년 12월에 타 부문보다 빨리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지난 2009년 11월에는 82.4까지 상승하였으나, 12월에는 80.7, 2010년 1월에는 79.4로 하락
- 가계 부문 지수도 2009년 2월부터 상승하여 12월에는 93.3까지 상승하다, 2010년 1월에는 92.9로 하락
- 이처럼 최근 기업 부문 경제위기 관리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기업 채산성이 재악화되고, 수출과 내수 부문 출하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또, 가계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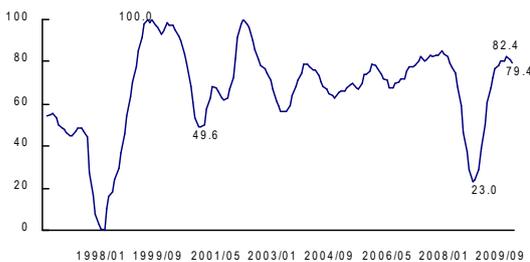
< 실물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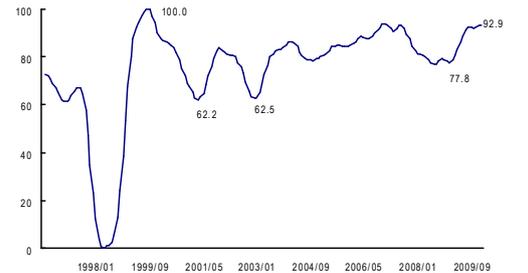
< 금융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 >



< 기업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 >



< 가계 부문 경제위기관리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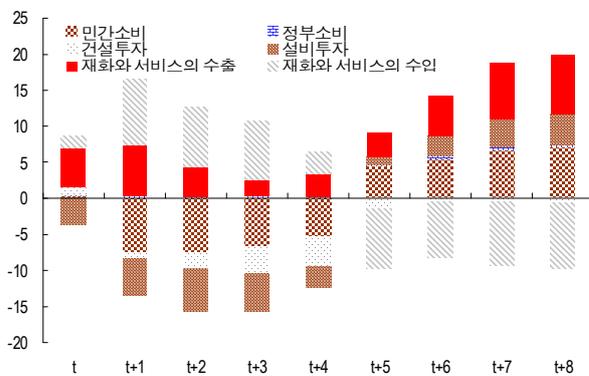
3. 외환위기 시와 비교를 통해 본 위기 극복 과정

○ (경기 회복 선도 부문) 외환위기 당시에는 세계 경기 호조 속에 수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높았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외수 부문과 내수 부문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지출이 경기 회복을 선도

- 외환위기 시에는 설비투자과 고용 악화가 심화되면서 내수 부문이 크게 침체되고 수입도 급감한 반면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을 선도함
 - 외환위기 발발 후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5~-7%p대 중반의 성장기여도를 보였으며, 건설투자는 약 -1~4%p, 설비투자는 -3~-5%p대 초반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
 -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동 기간 전년동기대비 2%p 초반에서 7%p 수준을 보임으로써 경기 회복을 견인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장기여도보다 정부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
 - 2009년 1/4~4/4분기 동안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0.2%p에서 1.1%p, 정부 재정지출 효과가 컸던 건설투자도 0%p에서 1%p를 기록
 - 반면 민간소비 성장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3/4~4/4분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자동차 등록세 면제 등 정부 소비 진작 정책의 영향이 큼
 - 더욱이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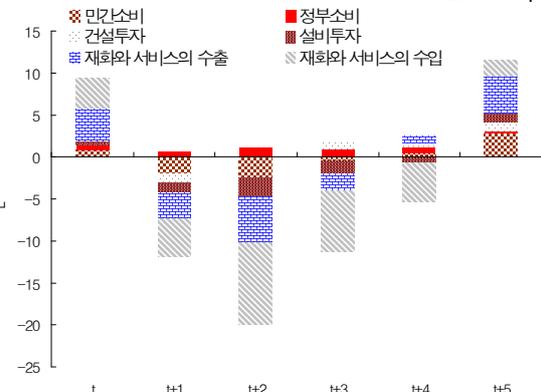
< 외환위기 시 성장기여도 추이 >

(단위: %p)



< 금융위기 시 성장기여도 추이 >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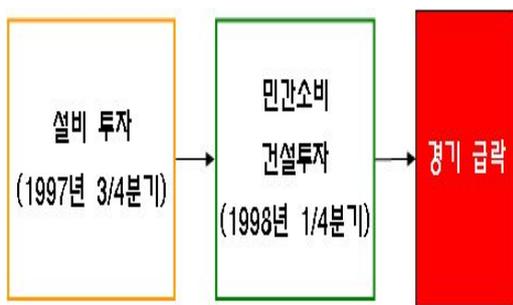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t는 위기 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4/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3/4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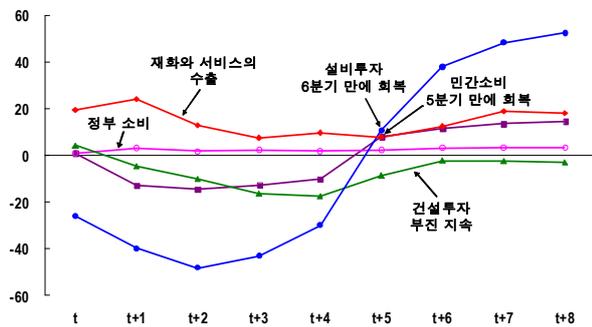
○ (외환위기 시는 수출 주도형, 현 위기는 정부소비 중심 내수 주도형) 외환위기 시 경기 회복은 외수부문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정부 소비를 기반으로 내수 부문을 중심이 위기를 견인함

- 외환위기는 외수주도형 내수 회복 : 외환위기 시 경기 회복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이른바 외수주도형 내수 회복의 패턴을 보임

< 외환위기 시 경기악화 추이 >



< 외환위기 시 부문별 성장률 추이 >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주 : t는 위기 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4/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3/4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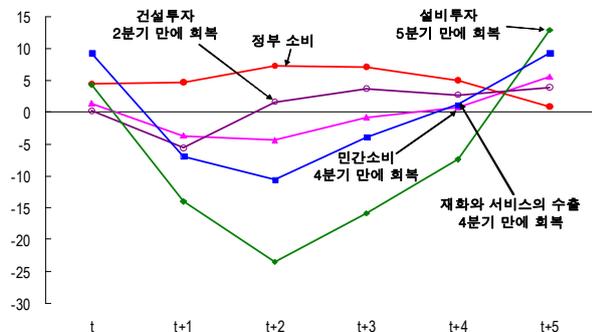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 소비 기반 내수주도형 : 정부소비 확대를 기점으로 건설투자가 살아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효과로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나, 설비투자과 수출은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지연

·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 민간부문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2008년 4/4분기 -9.1%를 기록한 이후 2009년 3/4분기 -11.3%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은 2009년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됨

< 금융위기 시 경기악화 추이 >



< 금융위기 시 부문별 성장률 추이 >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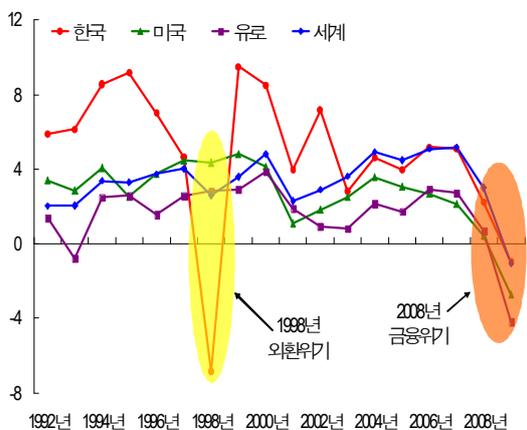
주 : t는 위기 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4/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3/4분기임.

○ (위기 극복 배경 비교)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기 극복 형태가 다른 가장 큰 원인은 대외 경제 여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외환위기 시에는 아시아 주요 개도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세계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세계 교역량도 증가세를 보인데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1997년의 4.0%에서 2.6%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는 아시아 주요 개도국들의 경기 급락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4.4%로 1997년 4.5%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유로지역과 영국의 경우는 1997년 각각 2.6%, 3.3%에서 2.8%, 3.6%로 성장률이 상승하였음
 - 한편,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된 반면 미국, 유로 등 선진국들이 증가세를 유지, 0.9% 감소에 그침
-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 경기와 교역량 모두 급격히 악화
 - 2008년 하반기 들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7년 5.2%에서 2008년 3.0%, 2009년에는 -1.1%로 급락
 - 한편,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 교역량도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2009년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미국 -27.2%, 유로지역 -22.2%, 2009년 전체로는 중국, 일본, 한국이 각각 16.3%, 34%, 19.7%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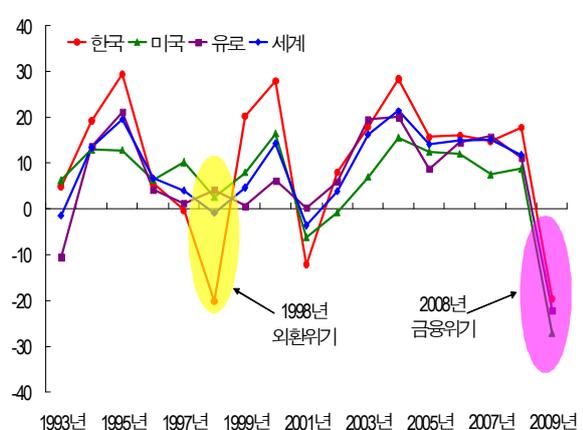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주요국 교역량 증가율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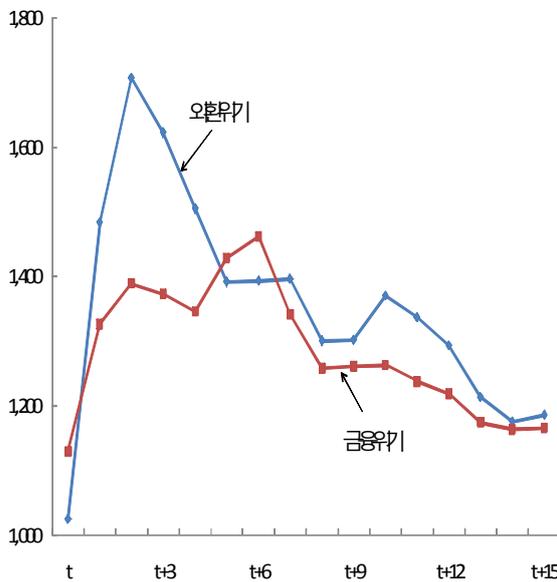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

주 : 교역량 증가율의 경우 미국과 유로 지역은 2009년 1-10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비임.

- 이처럼 외환위기 시 수출이 빠르게 큰 폭으로 회복된 것은 환율 급등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외환위기 시에는 위기 발생 2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66.4%까지 급상승한데 반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위기 발생 6개월 후에 월평균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도 29.3%로 외환위기 시보다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외환위기 발생 후 수출은 환율 급등 효과에 힘입어 위기 시작 시점 기준 3개월 이후 급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회복을 선도
 - 반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환율 상승 폭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뿐 아니라 속도도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되면서 국내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세가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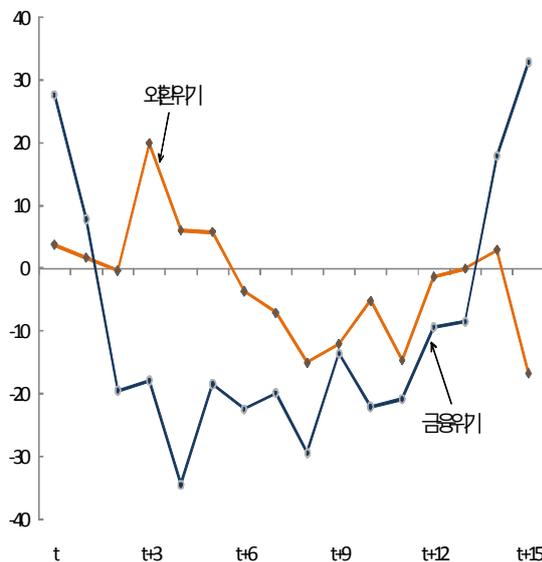
< 원/ 달러 환율 추이 >

(단위 : 원/달러)



< 수출 증가율 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주 1.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2. t는 위기 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금융위기는 2008년 9월을 각각 나타내며 월별 자료를 사용.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향후 국내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견실한 회복,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같은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최근 들어 유럽 각국들의 국가부채 문제가 부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커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지속해야 함
 - 세계 금융시장 급변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금융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위기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위기 파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
 - 한편 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등 국내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특히,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가계 부채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개별 가계에 대한 금융컨설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계 부채가 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지속성장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출 증대 노력 지속) 한편, 국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 노력을 통한 외수부문의 확대가 절실함
 - 미국과 유럽 지역의 경기 불안 양상이 재현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신흥 개도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가속시키는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또, 기존 선진국 시장의 경우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내수 경기 활성화)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 양상이 재현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외수 여건의 급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우선 당분간 경기 회복에 있어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중시하면서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 특히, 외환위기와는 달리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소비는 물론 내수 기업의 투자 회복에도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더욱이 출구전략의 시기와 강도에 대해서는 국내 경기의 완전한 회복 시기와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이부형 연구위원(02-3669-4011, lbh@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02-3669-4457, kimmj@hri.co.kr)
김동열 연구위원(02-3669-4112, dykim@hri.co.kr)
전선형 연구위원(02-3669-4131, shjeon@hri.co.kr)

참고 1. 경제위기관리지수 산출 방법

○ (경제위기관리지수의 지수화 방법) 1996년 6월~2010년 1월까지 데이터 대상으로 5가지 영역의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함

- 잡음(Noise)제거 : 3개월 단일가중평균(3개월 Moving average with uniform weights)을 이용, 부분별 지표들의 잡음 제거

- 조정화 단계 : 각각의 부분별 지표의 절대비교를 위해 평균 0, 표준편차 1로 지수 값을 조정

· 조정화 단계를 거친 각각의 지표들을 가중평균하여 실물, 금융, 가계, 기업의 부분별 지수를 산출

- 정규화 단계 : 각각의 부분별 지표의 판독 용이성을 위해 1~100까지의 상대 값으로 변환하고, Case별로 지수를 도출

· 정규화된 위기관리지수 = $\frac{\text{조정지수}_t - \text{최소값(조정지수}_t)}{\text{최대값(조정지수}_t) - \text{최소값(조정지수}_t)}$

- 종합경제위기관리지수 도출 방법 : 실물과 금융 위기관리지수를 이용하여 도출하고, 기업과 가계 경제위기관리지수는 종합위기관리지수의 보조 지표로 활용

○ (위기상황 판단 및 위기 진행 정도 분석) 현재의 상태가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임계치(Threshold)를 설정하여 위기 상황판단지수를 도출하고, 구간(Quantile)분석을 통해 위기 진행 정도를 분석

- 위기상황판단을 위한 지수 = $Y_t = \begin{cases} 1, & Y_t > \mu + \gamma\sigma \\ 0, & Y_t \leq \mu + \gamma\sigma \end{cases}$

· μ 와 σ 는 각각 표본 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γ 는 임계치 가중치임

· 본고에서는 γ 값을 0.4, 0.6, 0.8, 그리고 1.0를 이용한 후 사후적으로 결정

- 5구간(매우 위험, 위험, 보통, 안정, 매우 안정)으로 나뉜 구간(Quantile)분석을 통해 위기 진행 정도를 분석

참고 2.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 지표 구성 및 산출 방법

○ (지표 구성) 금융, 기업, 가계 3개 부문에 있어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부문별로 선정³⁾

- 금융 : 기준금리, 환율, M2, CDS 프리미엄, 회사채신용스프레드
- 기업 : 어음부도율, 종합경기전망지수(전경련 BSI), 건설수주, 기계수주, L/C 내도액
- 가계 : 신용카드국내승인액, 가계부채, 내구재소비, 아파트거래량

○ (경제위기극복가능지수 산출 방법) 3개 영역의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종합지수를 산출함

- 잡음(Noise)제거 단계 : 3개월 단일 가중 평균(3개월 Moving average with uniform weights)을 이용하여 부문별 지표들의 잡음을 제거
- 조정화 단계 : 각각의 부문별 지표의 절대비교와 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평균 0, 표준편차 1로 지수 값을 조정
 - 조정화 단계를 거친 각각의 지표들을 가중평균하여 금융, 가계, 기업의 부문별 지수를 산출함
 - 지수는 1~100까지의 상대 값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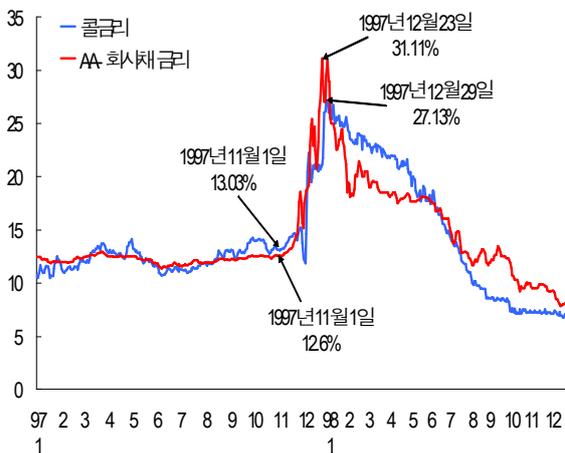
3) 부문별 주요 지표들 중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위주로 선정.

참고 3.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내 정책 여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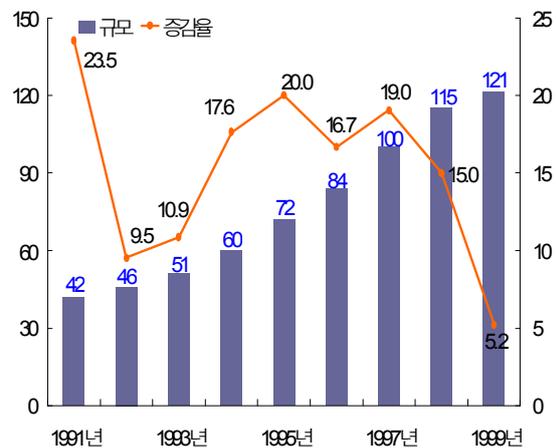
○ (금융 및 재정) 양 위기 발생 후 금융 및 재정 정책을 보면 외환위기 시에는 강력한 긴축정책이 취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완화정책이 취해짐

- 외환위기 시에는 금리 인상, 통화 증가 속도 억제 등을 통해 국내 총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 유도를 통해 환율 안정을 꾀함
 - 금리 상승 : 콜금리 익일물은 1997년 11월 1일 13.03%에서 1997년 12월 29일 27.13%까지 상승하였으며, AA- 회사채 금리도 1998년 11월 1일 12.6%에서 1997년 12월 23일 31.11%까지 상승함
 - 유동성 증가 속도 억제 : 한편, 광의의 유동성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97년 11월 16.4%에서 1998년 12월에 11.2%까지 하락
 - 재정 지출 증가율 하락 :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1997년 19.0%에서 1998년에는 15.0%로 하락

< 외환위기시 국내 주요 금리 추이 >
(단위: %)



< 1990년대 재정 지출 추이 >
(단위: 조 원,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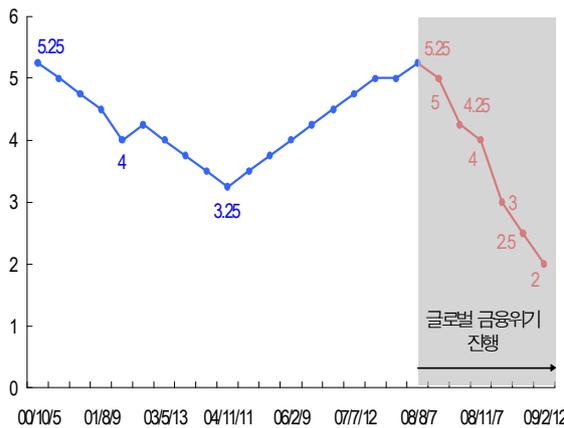
주 : 1999년 5월 이전에는 통화량목표제였기 때문에 주요 정책금리가 제시되지 않음.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로 인해 내수 확충을 유도하고 달러 유동성 확보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금융·재정 완화 정책을 추진

- **금리 인하** : 2008년 8월 7일 5.25%였던 정책금리를 2009년 2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2%까지 인하
-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 : 2008년 10월 30일 한미 간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 같은 해 12월 12일 일본, 중국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확대, 3년간 국내은행의 대외 채무 정부 보증(1,000억 달러) 등
-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 증액,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 **재정 지출 확대** : 정부의 총지출 예산 증가율이 2005~2007년 6%대에서, 2008년에는 10.5%, 2009년에는 14.8%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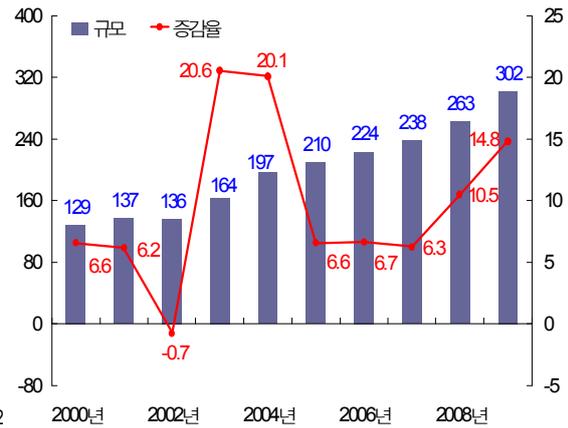
< 정책 금리 추이 >

(단위: %)



< 2000년대 재정 지출 추이 >

(단위: 조 원,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주 :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이후는 정책금리임.

○ (구조조정) 외환위기 시에는 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취약 산업 부문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 때보다는 강도도 약하고 속도도 느림

- 외환위기 시에는 전산업 부문에 걸쳐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부실정후기업평가, 회사채신속인수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도입되고 관련 각종 법제도가 정비되었을 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

- 한편,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건설, 중소조선, 해운업 36개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 추진되고, 대기업 그룹은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재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도에 그침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대내 정책 여건 비교 >

구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 및 재정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축 : 금리 인상 - 콜금리 익일물 1997년 11월 1일 13.03%에서 1997년 12월 29일 27.13%까지 상승 - AA- 회사채 금리 : 1998년 11월 1일 12.6%에서 1997년 12월 23일 31.11%까지 상승 - 통화량 축소 - 광의의 유동성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997년 11월 16.4%에서 1998년 12월에 11.2%까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 - 2008년 8월 7일 5.25%였던 정책 금리를 2009년 2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2%까지 인하 -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 : 2008년 10월 30일 한미간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 같은 해 12월 12일 일본, 중국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확대, 3년간 국내은행의 대외 채무 정부 보증(1,000억 달러) 등 -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 증액,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축 :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증가율이 1997년 19.0%에서 1998년에는 15.0%로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 2009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2008년 262.8조 원에서 39조 원(14.8%) 증가한 301.8조 원
구조조정	민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개혁 : 전산업 부문에 걸쳐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부실징후기업 평가, 회사채신속인수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도입되고 각종 법·제도를 정비 - 금융 구조개혁 :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중소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선 추진 - 총 186개 건설 및 중소조선 업체 중 C등급 29개사, D등급 7개사 - 대기업 그룹은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재무개선 유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공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원 해체 및 기획예산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 26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즉각 민영화 5개사, 단계적 민영화 6개사, 15개사는 경영혁신 또는 자체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통한 공공 일자리 채용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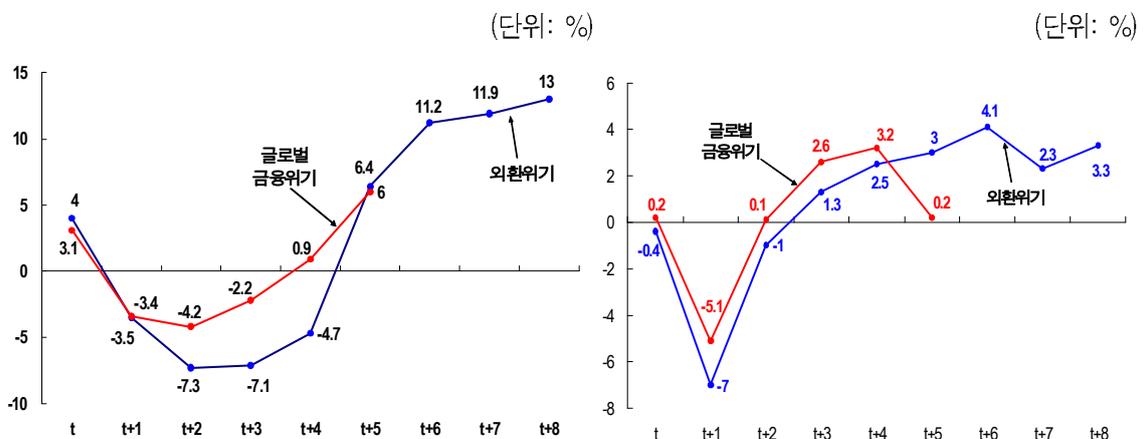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영선,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2008년.

참고 4.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경기 회복 속도 비교

○ (경제성장률)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추세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998년 1/4~4/4분기 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분기만인 1999년 1/4분기에 6.4%로 플러스 성장
 - 전기대비로도 1997년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뒤 1998년 2/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다가 4분기만인 1998년 3/4분기에 1.3%의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음
- 한편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후 4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전기대비로는 2008년 4/4분기만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더욱이 전기대비로는 2008년 4/4분기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



자료 : 한국은행.

주 : t는 위기 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4/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3/4분기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4	-6.4	-0.7	2.2	5.9	2.7
유로 지역	0.7	0.7	-0.3	-0.4	-1.9	-4.1	-2.5	-0.1	0.4	0.1	1.0
일본	-1.2	3.8	-5.2	-4.3	-11.4	-5.0	-12.3	5.2	0	4.6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2	7.9	9.1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3월05일	3월1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60	3.73	0.13p
	엔/달러	90.76	96.65	92.93	90.48	90.68	0.20¥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645	1.3686	0.0041\$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444	10,612	168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146	10,665	51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4.10	3.93	-0.17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40.1	1,128.3	-11.8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634.6	1,662.7	28.1p

주: 3월 12일 해외지표는 전일(3월 11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3월05일	3월1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0.40	82.22	1.82\$
	Dubai	36.45	71.85	78.06	76.60	77.87	1.27\$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4.80	273.39	-1.4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